

광주 수출기업 85% “환율하락 경영 어렵다”

광주상의 85곳 조사 결과... 매출감소·환차손 피해 손익분기점보다 낮아 적자 수출 채산성 ‘빨간불’

광주지역 수출기업 10곳 중 8곳이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수출매출 감소와 환차손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 등 관내 수출업체 85개사를 대상으로 ‘원·달러 환율하락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4.7%가 최근 4개월간 가파른 환율하락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정도는 ‘매우 부정적’이 29.4%, ‘다소 부정적’이 55.3%로 조사됐다. ‘별다른 영향 없음’이 14.1%, ‘수입단가 하락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광주상의는 연초 1달러 당 1060~1070원대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던 환율이 지난 3월25일부터 하락세에 돌입해 지난달 1020.6원까지 급락, 이들 기업이 단기적으로 받은 충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유형(복수응답)은 수출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의 하락(77.5%)이 가장 많았고, 이미 수출한 물량의 환차손 발생(60.6%), 수출물량 감소(2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85.7%)이 대기업(75.0%)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컸으며, 손익분기점 환율이 최근 환율수준보

다 낮거나 수입 원재료 사용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환율하락 대응책으로는 원가절감(36.0%)이 가장 많았고, 대금결제시기·수출단가 조정(26.7%), 환변동보험 가입(16.0%), 선물환 거래(5.3%) 등으로 답했다. 특히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경우도 28%에 달했다. 그 이유는 비용부담(33.3%), 급속한 환율하락에 따른 대처 곤란(28.6%), 수출비중이 적어 피해가 적은 때문(19.0%) 등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 광주상의는 아직도 많은 수출기업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환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지역 수출기업 10곳 중 6곳(57.9%)

은 적자수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환율수준이 지역기업들이 예상하는 적정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을 밑돌아 적자수출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 손익분기점 환율은 1046.7원, 수출 채산성을 담보할 평균 적정 환율은 1083.5원 등으로 현재 환율(지난달 기준 1020.6원)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율하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복수응답)으로는 안정적 환율운용(4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수출금융·세제지원(45.2%),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28.6%), 수출시장 개척 지원(23.8%), 중소기업환위험관리지원(13.1%), 결제통화 다양화 지원(8.3%) 등이 뒤를 이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0.42 (+7.32)	▲ 금리 2.55% (+0.01)
▲ 코스닥 549.61 (+8.52)	▼ 환율 1033.50원 (-3.60)



광주은행, 고객 상품선택권 대폭 강화

‘신방카슈랑스 시스템’ 구축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은행권 최고 수준의 방카슈랑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 ‘신방카슈랑스 시스템’을 구축,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구축된 신방카슈랑스 시스템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발에 착수, 9개월간의 실무작업과 영업점 테스트를 거쳐 완료됐다. 이 시스템은 상품비교설계 프로

올 추석 과일값 태풍이 정한다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차려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햇과일 가격의 막판 변수로 태풍이 급부상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배와 사과 등 과일 산지에서 낙과 피해를 일으킨 데 이어 더 강력한 11호 태풍 ‘할롱’이 북상,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유통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마트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배 계약재배 산지에서 5~10%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나주, 영산포, 영암 등 남부지역 산지에서는 15%가량의 낙과 피해가 있었다. 다만, 사과의 경우 문경, 안동, 영주, 죽장, 예산 등에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었다. 북송이는 전주와 남원, 정도에서 20~30%의 낙과 피해가 있었으나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이마트는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일 광주 이마트 상무점에서 한 고객이 과일 매장에 진열된 복숭아를 고르고 있다. <이마트 제공>

광주·전남 개인회생 신청자 2371명... 10% 늘어

‘쏟림현상’ 심화 ... 상반기 전국 5만7천명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채무자가 활용하는 채무조정 제도 중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광주·전남의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237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0%(203

명) 가량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9년 3869명에서 2010년 2821명으로 줄었다가 2011년 3359명, 2012년 4077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4559명)는 사상 처음으로 4500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장기불황의 여파로 주부나

자영업자는 물론 고소득 직군의 대명사였던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쏟림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광주·전남 시·도민은 2143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00명(8.54%)이 높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자(345명)는 36명(9.44%)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1430명으로 178명(11.07%)이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전국적으로 5만706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9%(5152명)나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전자자료,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진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가람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대령감정평가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s82 / PW : 1111
광양시 중마로 494-1 (마동정수장 옆)